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노래다. 이렇다할 추억은 없지만 가슴이 알알하다. 가수 이송의 '잊혀진 계절'이 발표된 지 올해로 벌써 29년째다. 보통 특정 시즌이나 계절을 노래하여 애창되는 곡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매년 '특정일'에 그야말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방송되는 곡을 찾기는 어렵다.

음악방송모니터링 업체인 차트코리아에 따르면 2005년 10월 31일 당일, 이송의 잊혀진 계절은 총 88회 방송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당일 2위가 서지영이 부른 <Stay in me>로 30회, 다음 해인 2006년 10월 31일은 잊혀진 계절 103회로 1위, 성시경의 <거리에서>가 45회로 2위, 2007년 10월 31일도 잊혀진 계절 131회 1위, 원더걸스의 <텔미>가 42회로 2위, 작년 같은 날도 잊혀진 계절 114회 1위, 원더걸스 <노바디>가 49회 방송되어 2위를 차지한 결과 집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불기 시작한 잊혀진 계절에 대한 리메이크 붐으로 서영은, 김범수, 화요비 등의 버전으로 매년 같은 날 50회 이상이 선곡되어 왔고 특히 작년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4집에 수록된 <영웅재중>의 노래는 신세대들에게까지 가수 이송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계절은 잊혀져도 노래는 남듯

송의 곡을 비롯한 '잊혀진 계절'의 선곡 파워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곡 자체가 지니는 생명력 이외에도 대중들이 이 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학습효과를 원인으로 꼽는다.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10월 마지막날에는 어쨌든 한번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곡으로 각인되었다는 의미다.

그 언젠가 시월의 마지막 밤. 사랑하는 이와 고향던 이별의 아련한 기억이 매년 그날 떠오른

다는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오편바대에 불을 지핀 이송의 탁월한 가창력이 전설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절은 잊혀져도 노래는 남는다. 육신은 소멸되어도 말씀은 남는다. 성철 스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무수한 법어는 차츰 잊혀져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한 말씀은 중생들의 뇌리에 오래오래 각인되어 전해질 것이다.

인생은 백화점 만들기가 아니다. 좁고 험한 길을 외로이 가는 것이다. 그 길에 한 점 흔적을 남

긴다면 이승에 다녀간 보람이다. 현란한 말과 번듯한 족적은 후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혼란과 스레기다. 반듯하고 정갈하게 짝한 발자국은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욕심이 과해 난잡하게 남긴 명예, 재산, 허언(虛言)들은 공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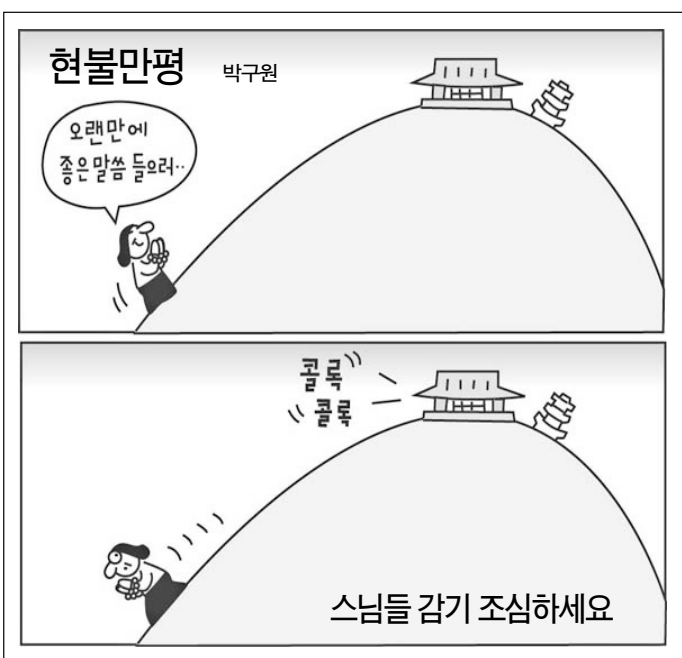
바람이 불어 낙엽이 꽃비처럼 몸에 쏟아진다. 낙엽은 제 가는 곳을 묻지 않는다. 울창했던 녹음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무명용사처럼 떨어지며 가을을 장식한다. 짓푸른 청록의 시절을 과시하지 않고 습기 빠진 여원 일새 되어 조용히 떨어진다.

눈만 뜨면 말의 성찬이 펼쳐진다. 귀는 열고 닫는 기능이 없어 마구잡이로 밀려드는 말들을 들어야 한다. 확실히 뽕뽕뽕 허언들이 창처럼 역전 기세로 컷전을 밀고 들어온다. 늦은 시간, 허허로이 홀로 가로수길을 걸으며 잊혀진 계절을 듣는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 애절한 노래를 들으며 고독과 곁허를 그리워하자. 잊혀지지 않는 오래된 말씀을 되새겨본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흉망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형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신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찬바람이 나면 생각나는 보살님이 있다. 보살님은 남편이 일찍 가고 세 딸을 키우며 어렵지만 진실한 불자로 살았다. 당시 큰 딸은 약혼한 상태였다.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중년의 여인이 집에 찾아왔다. 그 여인은 "가슴이 답답하네요"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때렸다. 그러면서 "등 좀 두드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보살님은 요청에 따라 등을 몇 번 두드려 주고 물을 떠다 줬다. 그리고 저녁 먹고 가라고, 방에서 좀 쉬라고 말했다. 보살님은 부엌에 가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퇴근한 딸이 "엄마! 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놀라 가보니 그 여인은 쓰러져 숨이 멎어버렸다.

경찰이 오고 조사하자 보살님은 곧 이골대도 대답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족들이 그란 앙심을 품고 고발했다. 결국 보살님은 '과실치사' (잘못하여 죽게 만들) 혐의로 구치소에 가게 됐다. 등을 두드려 주고 물을 떠다주고, 너무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나 결백했기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악용당한 것이다.

장모님 사람이 들어갔다며 큰 딸은 약혼자에게 파혼까지 당했다. 아버지 없이 키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살님은 "절대로 그 죽은 사람이나 가족을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니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주라고 한다니까요." 동생보살님이 고민하며 나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간곡히 부탁해 결국 천도재를 지내게 됐다.

보살님을 면회가 창상 너머로 만났다가 막히고 차마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내 걱정을 한다. "추운 데 교도소 찾아다니며 힘드시지요?" 밝게 웃는 보살님을 보니 이 와중에 어떻게 남을 배려하실까 싶었다. 가슴이 저렸다.

"그 안에서 제발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찬물과 난방이 잘 안 되는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구치소 생활이 환갑 넘으신 분에게 큰 격정이었다. 뜻밖에도 보살님은 "힘든 일은 도맡아 해요." 나는 놀라서 "네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보살님이요?" 그러다 큰 일 나서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업을

갖고 싶어서요. 전생에 그 사람에게 잘못 했나 봐요. 열심히 감사하게 참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전화한 동생보살님은 울었다. "아무 잘못 없이 저 고생을 하면서 언니는 원망도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니! 딸들에게도 절대 상대방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만 하니, 그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저도 불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간신히 대답했다. "네,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 시집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본래 부처라고 말씀 하셨다. 부처님 법이란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피어나서 세상의 원망과 고통을 자비와 용서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결실이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마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나무 지장보살마하살.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ook cover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Eulgya-cheondo) by Heonbeop-sa. Features a large character '命' (Life) and a drawing of a person.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진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dvertisement for 'Cheongdong-bul-sang' (청동불상 조성전문) featuring images of three Buddha statues and text about their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社說

당선자와 지지자의 책임과 의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예견된 대로 선거판은 조용했고 '역대최다'라는 수식을 동원한 압도적인 득표로 자승 스님이 새로운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다. 조계종 원로회의도 자승 스님의 당선을 인준했다. 이제 조계종은 총무원 수장이 바뀌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우선 임기를 마치는 지관 스님은 30일 공식퇴임식을 갖는다. 그리고 자승 스님은 11월 5일 취임식을 앞두고 각 직급에 어울리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떠나는 전임자와 새로 맡은 후임자의 발길이 분주하다.

4년 전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직으로 충격을 받은 조계종에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음으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지관 스님은 '실천하는 불교'의 가치를 무리 없이 실행했다. 포살결계 시행 등으로 내적인 기풍확립이 이루어졌고 대사회적인 불교의 위상과 역할 모색도 꾸준한 해문화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책 기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종단의 안정이 무너지면 불교계는 곧바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자승 스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앞뒤와 좌우를 살피면서 새로운 종단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 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종도들도 지지를 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겸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종단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봉암사 국제선센터의 '무계'

문경 회양산 봉암사는 조계종이 계승한 선종의 원류를 간직한 곳이다. 말리는 구산선문의 하나이며 근세에는 성철 스님 등의 결사정진이 어린 곳이니 누구도 봉암사의 무계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가 세워진다는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서 국제선센터 건립에 확실한 기초가 다져졌다. 이 국제선센터는 봉암사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불사다.

선불교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다.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불교적인 것의 이상형이 바로 선수행이다. 그런 선의 전통이 세계를 무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속빈강정이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선불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는 봉암사 지역에 국제선센터를 지어 외국인들에게 선을 체험시키고 선불교의 공국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이 찬한 '봉암사지증국사적조법'의 한 대목은 이미 천 년 전에 오늘날의 이 불사를 예견한 듯하다.

"겨울 산봉우리에 빼어나고 정립에서 꽃다운데 덕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사람이 산에 가득하고 악인이 변화하여 선인이 된 사람이 골짜기에 꼭 차게 되었으니 도라는 것은 폐하여 질 수 없는 것이요 때가되면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다."